

제공일자	2012. 12. 14(금)	담당자	전용식 연구위원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3775-9051)	연락처	3775-9035 010-9247-8637
			총2매

제목 : 주요국의 지급결제수단 규제 분석과 시사점 발간

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급결제수단의 균형을 위해 보험사에 대해 지급결제 허용을 재검토할 필요

- 보험연구원(원장 김대식)의 전용식 연구위원과 채원영 연구원은 『주요국의 지급결제수단규제 분석과 시사점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
- 최근 신용카드회사들의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.
 - 특히 신용카드 결제비중이 높은 온라인 손해보험회사들에 대한 수수료 부담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-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은 경제의 공평성(equity)을 훼손하고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의 효율성(efficiency)을 저하시킬 수 있음.
 - 신용카드 결제비중이 압도적이고 신용카드 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업 등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은 신용카드회사들의 수익 악화를 가맹점과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임.
-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주요국들의 지급결제 수수료에 대한 제도개선·소송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,

○ 주요국들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상승에 대한 직접적 규제, 소비자들에 대한 수수료 공시 의무화, 가맹점의 가격차별 금지 폐지, 카드회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책정에 대한 협의 등의 규제를 부과하고 있음.

- 이러한 규제로 호주에서는 지급결제수단의 균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음.

□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의 원칙에서 개편될 필요가 있음.

○ 지급결제수단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소액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첨부 : KiRi Weekly 제212호